

화순 '자연속애영농법인' 都·農상생 모델 주목

올해도 150억 투자 대규모 유리온실 설치 자본 취약한 귀농·농업인에게 임대 지원

화순군 능주면에 있는 '자연속애영농조합법인'이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자본금 8억5000만원에 연매출 80억원 규모인 조합이 올해 150억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총 480억원을 투자해 대단위 임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 재원은 농업 법인과 농업인 자체자금, 투자 유치 및 차입을 통해 마련한 후 유리온실을 설치해 농업인에게 임대 계약하는 방식이다.

조합측은 우선 1차 투자자금 150억원으로 대단위 유리온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유리온실은 지역 농업인들이 자기 자본 부담없이 장·단기로 임대해 작물을 재배하는 임대형태로 운영된다.

조합은 운용성과를 검토한 후 2·3차에 걸쳐 총 480억원을 투자해 기능성 토마토 생산에서부터 셀러드 타운 조성 및 가공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으로 임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의 공동구매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단일 유통창구를 통해 수출·내수·가공 등이 이뤄지는 구조로 농업인에게는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 농업인들의 경우 자기 자본 구조가 취약해 좋은 재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남야공 주지사 일행들이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유리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보조금 문제로 인한 여러가지 잡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농업인들과 귀농 희망자들이 생산 시설을 임대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도 높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100%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로 먹을거리에 대한 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이길호 대표는 "새로운 농업모델을 전남에 정착시킨다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이라며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귀농학교를 운영해 이들에게 현장 재배기술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해 정착하는데도 기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재단법인 설립...민간 위탁

목포시의회, 조례안 의결

삼학도에 건립되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목포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목포시가 상정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노벨평화상 기념관 운영을 맡을 재단법인을 설립해 민간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목포시는 다음달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와 재단법인 설립신고 등을 거쳐 5월경 법인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발기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의 유족과 김대중도서관과 김대중평화센터 등 관련단체 관계자, 지역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념관의 운영 재원은 지정기탁금과 기부금, 후원금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며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기부금을 받는데 제약 요건이 있어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 계승을 위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삼학도 1만5600㎡ 부지에 2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677㎡, 지상 2층, 높이 14.1m 규모로 건립된다.

관련 목포시는 오는 6월15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남도-(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공동

음식점·숙박업소 종사자 친절 교육 등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서비스 개선 추진

전남도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과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2012 한국방문의해 식당환대서비스 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이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후속사업으로 전남도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기는 한국관광 만족도 및 외국 관광객 재방문을 4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 사업은 관광지 주변 음식점 서비스 개선 및 관광업 종사자 친절교육,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등이다.

전남도는 외래 관광객 주요 방문지와 주요 행사 개최지 내 음식점을 비롯한 숙박업소의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외국어 메뉴판, 위생환경 개선 물품 등을 제작 지원하는 환대 실천캠페인을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연



전남도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전남도청에서 업무협약 체결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계해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음식·숙박 서비스 개선 공동사업을 도 역할 시책인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연계해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장의 관광서비스 질을 한층 높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11~2012년 한국방문의 해 및 식당 환대 실천 캠페인 공동사업으로 외국어 메뉴판,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제작 및 음식점 친절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감대신 서명 사용

전남도 활성화 나서

전남도가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제의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본인 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22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군 발급 및 수요부서 공무원과 도내 법무사, 공인중개사 임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 서명하면 발급기관(읍면동)이 서명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최영열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설명회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원활한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법무사협회 등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높여 민원인 안내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m 넘는 먹갈치' 대량 잡혀

신안 병풍도 해역 30년만에 풍어 한상자 가격 13만원선 매출 경중

갈치 철도 아닌데 1m가 넘는 먹갈치(사진)가 대량으로 잡혀 어민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갈치가 사라졌던 신안 병풍도 해역에선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어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목포 근해안강어선 41척이 최근 조기를 잡으며 활짝 웃었다가 생각지도 않은 큰 갈치를 잡았다.

808 해선호와 남해호는 각각 8000만원, 6000만원어치를 잡았다. 다른 어선 10여척도 5000만원이 넘는 갈치 풍어를 보았다.

남해호 선장 장철욱(47)씨는 "병풍도 해역에서 1m가 넘는 갈치를 잡아 본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활짝 웃었다.

해선호와 남해호는 각각 2000마리, 1300마리를 잡았다. 갈치 크기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씨알이 좋다. 3~4마리를 한 상자에 담을 정도로 크다. 상자당 가격은 13만원선이다.

목포수협 위관고도 갈치 덕택에 경중 뛰었다. 올해 들어 현재



까지 22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90억원)보다 30억원 늘었다. 갈치 위관고가 전년(11억원)보다 19% 증가한 30억원으로 증가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전남도 결핵 퇴치 팔 걷었다

적기 예방접종...취약계층 순회 검진

전남도는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적기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소집단 순회검진, 보건소 등 록박자 직접복약확인사업(DOT·Directly observed Treatment) 등 결핵퇴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결핵예방의 날과 결핵예방주간(3월22~28일)에는 '결핵예방은 생활이다'는 구호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전남도는 27일 여수 진남시장 일원에서 국립목포병원, 대한결핵협회(호남지회), 여수시와 공동으로 결핵 예방의 날 기념행사와 가두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결핵은 그동안 이미 사라진 것으로 인식됐으나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OECD가입 국가 중 가장 높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생산 연령층(20~40대) 환자가 늘어 우리나라

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해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적기에(영유아)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치료 대상자는 빠짐없이 예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 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고객 이벤트

Special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허니문카드 특전

- 객실이용시 4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가족모임(돌잔치, 고화연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헌수막, 케이크 서비스)
-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이용 시 4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 케이프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 시 50% DC (본인2인에만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제과 전 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